전 세계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정 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1982 년 10 월 17 일

오늘 10월 17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56돐이 되는 날이다.

《ㅌ. ㄷ》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그 길우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거창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일떠세웠다. 우리 당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조국과 혁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1

우리 당은 오랜 력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당이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곡절을 겪은 조선혁명은 온갖 시련을 뚫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전투적인 당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조선혁명의 이 절실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1926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ㅌ. 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이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사대주의,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ㅌ. 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주체형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ㅌ. ㄷ》의 강령은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 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 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다름아닌 《ㅌ. 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ㅌ. ㄷ》로부터 시작된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내오심으로써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단순한 청년조직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 세대들이 등장하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니고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한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0 년대 후반기에 타국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결함들이 극복되고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 년에 있은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면서 혁명적당창건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매개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담당자,주인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자신이다. 매개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것도 어디까지나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자신의 힘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다.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요구에도 부합되는것이였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짐에 따라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옳바로 전진시켜나갈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매개 나라에서 당을 창건하는 사업도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할것을 요구하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였다.

종래에는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소조들을 묶어세우거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부터 혁명파가 분리되여나오는 방법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이 일반적현상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길을 걸을수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만 쳐다보면서 파벌투쟁을 일삼아 당을 말아먹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이였다.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종파사대주의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하여서는 결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었다.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낡은 당이나 종파주의, 사대주의에 오염된 기성세대와 인연을 끊고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야 하였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하였다.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야 조직사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빨리 키워낼수 있었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을수 있었다. 또한 당창건준비사업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핵심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었으며 당을 투쟁력이 강한 전투적부대로 건설해나갈수 있었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은 이처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에 기초하여 카륜회의후 당조직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 년 7 월 카륜에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였으며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1930 년 10 월초에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성원들로 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현당위원회로부터 부락의 당세포에 이르는 당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반일인민유격대안에는 련대에 당위원회, 중대에 당세포, 소대에 당분조가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특히 1934 년 3 월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오고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지도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하여졌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나옴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 년대 전반기에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후반기에 당조직들을 국내에 널리 확대하고 반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며 전반적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것을 구상하시고 이 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여기에서 1936 년 2 월 남호두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는 중요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1930 년대 전반기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총화하시고 이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려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이리하여 만주의 넓은 지역과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들이 확대되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우리 나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1936 년 5 월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는 당적령도가 보장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당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회에 묶어세워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실현하는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이 육성되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훨씬 강화되였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와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에 우리 당 조직들이 건설되여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조직적으로 련결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수령의 령도, 당적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함으로써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은 수령에 의하여 제시되며 당회의들에서 토의결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당 및 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에서 매 시기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그 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투쟁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사실 당시의 조건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은 당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는 회의였으며 당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당시 조선혁명에서 주류를 이른것은 무장투쟁이였으며 당의 령도에서 기본은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안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속에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해설침투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국내외 여러 지역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교양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이처럼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그 령도밑에 투쟁하였기때문에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수 있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각 지방에 당조직들을 내오시고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장기간에 결쳐 진

행되여온 당창건위업을 완성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새 사회건설을 확신성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집권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당대렬을 확대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과정이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선 문제는 당을 급속히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였다. 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야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여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조직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결성하시였다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부합되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는 혁명에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광범히 참가하게 된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광범히 묶어세우고 그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더우기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문제로 나섰다. 해방후 공산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당을 광범한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 힘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통일적인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성숙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제때에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고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근로대중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었으며 각계각층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선 중요한 과업은 당대렬의 급속한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는것이였다.

1948 년 3 월에 진행된 당 제 2 차대회는 당의 질적공고화를 대중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심문제로 내세우고 당세포의 강화, 당사상사업의 개선, 당의 조직적, 사상적 통일의 보장과 같은 당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당 제 2 차대회에서 제시된 당의 질적공고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이 개선되

고 당세포가 전반적으로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되였으며 당원들과 간부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당대렬이 질적으로 공고화되고 당의 통일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당의 령도적기능이 높아졌다.

1950 년대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시기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당에 있어서 엄혹한 시련이였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체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전쟁의 조건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이끄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 3 차전원회의를 통하여 일시적후퇴시기에 조성되였던 무규률적현상들이 극복되고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확립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 4 차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조직사업에서 나타났던 좌경적편향이 극복되고 당대렬이 확대강화되였다. 특히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 5 차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제때에 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기때문에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었다.

전후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며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복구사업을 끝냈으나 형편은 아직 어려웠다. 그런데다가 당내에 남아있던 종파분자들이 수정주의를 받아물고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조성된정세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들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6 년 4 월에 당 제 3 차대회를 소집하시고 당건설분야앞에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며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1956 년 8 월전원회의에서 당에 도전하여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서 당 제 3 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56 년 8 월 전원회의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종파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사상요소들을 반대하고 주체의 기치, 당의 통일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데 있다. 당 제 3 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56 년 8 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 사업에서는 주체가 더욱 튼튼히 서고 당의 통일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제때에 종파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였기때문에 내외정세가 복잡하던 때에도 동요없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1960 년대에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이 완수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전일적으로 확립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됨으로써 우리 당 활동의 사회경제적조건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또한 반당종파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소집된 당 제 4 차대회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수정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고수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중앙위원회와 운명을 같이하여 끝까지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 제 4 차대회가 당건설분야앞에 제시한 과업들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이 한층 높아졌으며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1967 년 5 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15 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1970 년대는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시기였다.

1970 년 11 월에 소집된 당 제 5 차대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규정하고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당제 5 차대회가 제시한 당사업의 총적과업을 견결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았다.

당의 위업은 대를이어 계속되며 당은 자기 사명을 다할때까지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모든 활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복종시켜 진행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혁명의 골간력량을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징표로 하고 로,중, 청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렸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 그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하였다. 당이 제시한 간부혁명방침과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이 더욱 강화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골간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강화하는 사업을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는 당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되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움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1970년대에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 당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1980년대초에 열린 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새로운 웅대한 투쟁강령을 내놓으면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계속 틀어쥐고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당건설분야의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현하여나가는 위대한 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먼저 당을 조직사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었다.

《ㅌ. ㄷ》의 기치밑에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 세우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이 위대한 투쟁의 조직자, 령도자인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계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2

《ㅌ. ㄷ》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당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자체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인것만큼 마땅히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이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남의 풍에 놀게 되면 결국 당도 혁명도 다 망쳐먹게 된다. 오직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당만이 자기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강력한 당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대주의,교조주의를 극복하는것이다. 특히 사대주의,교조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공산주의

운동에 큰 해독을 끼쳐온 우리 나라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에도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언제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투쟁을 전진시킬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대주의자들은 남의 승인을 받아 당을 창건하고 남의 힘을 빌어 독립을 이룩하려 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해방후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심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받들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고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이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의사의 체현자이며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지도사상이다. 당의 사상적유일성은 오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실현된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힘있게 벌린 결과 전당에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게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

이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며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놓았다.

우리 당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였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이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전 과정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여온 과정이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원칙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당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력한 당이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다. 통일되고 단결된 당은 불패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당의 통일단결은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반당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당내반영이다. 반당적조류와 이색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당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요소들과 반당적조류들을 극복하는 투쟁과정에서 대렬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섰던 투쟁대상은 종파주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혁명대오안에서는 종파주의가 극복되고 전대오가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굳은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통이다. 그런데 변절자, 시정배로 굴러떨

어졌던 종파분자들이 해방후 혼란된 틈을 타서 공산주의대렬안에 잠입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저들의 종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종파주의를 허용하고서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당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할수 없다. 우리 당은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선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데 화력을 집중하여 당안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는것으로 끝날수 없었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당의 력사적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결속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결코 그 어떤 의무감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드팀없는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에서 중요한것은 사상의지적인 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만이 공고한 통일이며 실무적인 단합으로써는 공고한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하나의 사상은 다름아닌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이며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의지적통일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강력한것이다.

우리 당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강철의 당이다.

혁명적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최고조직이며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참말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이 지배하게 되면 당이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우리 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더욱 위력하며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된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 때 더욱 강화된다. 우리의 현실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당내부생활규범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당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여 당을 강한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위력한 방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이 높아지고 모두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된것은 당건설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불패의 당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해나간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할수 있다.

대중과의 련계문제는 집권당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대중과의 련계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집권당도 대중과 유리되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잃으면 무력해질뿐아니라 자기의 존재까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군중과의 련계문제를 혁명조직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시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모든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당의 계급진지를 튼

튼히 꾸리는 한편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대담하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웠다.

오늘 우리 당은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각계각층 군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동요없이 싸워나가고있다. 이처럼 대중과 혼연일체로 된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며 그 어떤 힘도 우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깨뜨릴수 없다.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였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정치조직인 당의 모든 활동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사람들을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할데 대한 사상은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구현하여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당사업의 행정화, 기술실무화를 막고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당의 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집권당에서 나타날수 있는 당사업을 행정실무화하려는 편향을 반대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견결히 관철하였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당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려는 관료화의 경향이 나올수 있다. 관료주의는 혁명의 시련을 겪지 못하고 순탄하게 자라난 일군들속에서 더 많이 나타날수 있다.

원래 관료주의는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실시하는 전제적인 통치방법으로서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에 물젖게 되면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다 하여도 그것이 옳게 관철될수 없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 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한 기본방침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관료주의와 세도를 비롯하여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뽑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 참다운 길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현되고 발전되였다. 청산리방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사업방법이며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군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룩되였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투쟁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 투쟁인것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를 당사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적으로 강한 투쟁을 벌린 결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당사업전반에 구현되고 당사업기풍이 일신되였다.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고 모든 사업이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다.

참으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3

오늘 우리 당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대를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갈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그 어떤 무정부적인 사회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움직여나가자면 당과 같이 강한 조직력을 가진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가 있어야 한다. 옳바른 정치적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할수 없다.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령도가 없이는 사람들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이 옳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이 보장될수 없다.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 나라 혹은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여도 외부의 원쑤들의 침략위협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을 면할수 없다.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칠수 있으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보호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해나가야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령도해나갈수 있다.

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곧 당을 주체사상화하여온 과정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당의 력사적투쟁의 계속이며 그 높은 단계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갈때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지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득한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셔야 험난한 혁명의 앞길이 개척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헤치며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순간을 살아도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살며 싸워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은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멸한것이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신것처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후대들이 대를 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당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다. 자기를 키워준 수령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당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오늘 우리 당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있으며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가 바뀌여지고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긴장하고 복잡하다. 현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이다.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모든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귀착된다는것이 우리의 신조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구감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따라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그이께 충성다하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끝없이 풍부하고 고귀한것이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혈통을 이어받음으로써 가장 굳건한 조직사상적터전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험난한 길을 헤쳐오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전도도 이 위대한 혈통을 어떻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현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굳건히 고수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오랜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된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가 있고 기회주의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를 비롯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저애하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이어 고수하며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의 지휘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 철같은 규률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당원들은 조선에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책임지고 완성하여야 할 전위투사들이다.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당대렬안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대렬이 당적세련이 부족한 새 세대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있는 조건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당의 대를 끗끗이 이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전당에 세워진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전당에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키워오신 우리 당안에는 수령의 사상밖에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수령님식사업방법밖에 다른 사업 방법과 작풍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 당안에는 아직도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남아있어 당사업에 손실을 끼치고있다.

당이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지 못하면 점차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들과 리탈되여 나중에는 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다. 우리는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것이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뿌리빼야 한다.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적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당일군들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참다운 혁명동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바칠줄 알아야 한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려면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을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독창적인 당사업리론, 당사업방법론이다.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할수 있으며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조직동원하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당이 관료화, 행정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을 령도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낡은 사업 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을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어머니당으로,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대중의 기수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의 혁명투쟁은 더욱 보람찬것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투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기풍이다. 우리는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따라 계속 굴함없이 싸워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